

동양선교교회

성도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열 여덟번째 글

박형은 목사 지난 12월 우리교회서 가진 새벽집회에서

“나는 1세 목회에 별로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밝혀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채홍인 장로로 구성된 우리 교회 당회(이세훈 장로는 노수정 장로가 이미 사표를 제출, 더 이상 시무장로가 아니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으며 박환장로는 당회원들과 다툰 뒤 이미 오래전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는 지난 19일 주일 예배 후보에 1주일 뒤인 26일에 박형은 목사를 당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한 임시 공동총회를 소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회는 그 전 주일부터 텍사스 주에 있는 빛내리 교회의 전 담임목사였던 박형은 목사를 영상을 통해 선전을 하고 이어 후보 안에 칼러로 제작한 박목사 소개 문서를 만들어 함께 배포했습니다. 당회가 제작한 이 문건은 교인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 잘못된 내용과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싣고 있어 당연히 폐기돼야 할 문건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작한 술수를 밝히기에 앞서 박형은 목사는 우리교회 스타일에 맞지 않으며 현 시점에서 담임목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교회가 지금 필요한 목사는 2세 목회자가 아니다

상처투성이의 교인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목회자 필요

우선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담임목사님은 2세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강준민 목사 이래로 모든 교인들, 특히 1세인 우리 모두가 상처를 입고 치유 받지 못한 채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 마음에 상처를 안고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포함한 모든 교인들 그리고 원로 장로님들까지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녹여져야 할 실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교회 당회원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이들이 아니라 2세들이 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실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아니 전혀 모르는 무지한 소치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당사자인 박목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우리 교회에서 가진 새벽집회 첫날 설교에서 **“사실 저는 2세 목회를 해야 할 사람입니다. 1세 목회에 별로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이날 설교는 지금도 교회 안내부서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속된 노회까지 비화된 1세 교인들과의 갈등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쫓겨난 목회자

박목사가 텍사스의 빛내리 교회에서 4년 동안 시무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도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나이 많은 1세들은 “박목사가 나이 많은 사람들을 경시했다”는 불평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1세들과의 갈등은 교회내에서 뿐 아니라 빛내리 교회가 속한 노회에까지 번져 노회에서 Thomas Gibbons라는 중재 목사님을 파견 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박목사는 1세와 1.5세 갈등을 치유는커녕 해결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목회자를 우리교회의 담임목사로 받아드리자는 것이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채홍인 등 4명의 시무 장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박목사의 청빙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아래 빛내리교회 후보 참조)

222호실에서 있습니다.
- 5월달 소식지 '징검다리'가 나왔습니다. 안내석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월3일 노회에서 저희 교회의 당회 Moderator로 Thomas Gibbons 목사님을 임명하였습니다. Moderator는 앞으로 당회와 공동의회 회의 를 진행하고 노회와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 지난 수요일 임시당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청빙위원: 권창섭 정운암 곽연태 김익수 윤성혜 조원호 홍미경) 청빙위원들과 앞으로의 과정이 은혜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빙위원들은 오늘 오후 1:15에 당회실에서 첫 모임을 갖습니다.
* 5월9일(월)에 저희 교회 당회원과 청빙위원 그리고 노회 대표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 교우소식

- 박성진 장로 새 사업체 오픈 JUICE BAR (LA Fitness 내)
7211 Skillman St. Dallas TX 75231

박목사, 하와이의 3, 4세 관련 언급, 잘못된 사실파악 그들은 교회를 떠난 것 아니고 학교와 직업따라 옮긴 것

박형은 목사는 이번에 우리교회 당회가 배포한 소개문서에서 ““하와이에 세워진 첫 한인교회에는 한인 후손 3, 4세대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100여년 전 노동자로 이민의 길에 들어선 하와이의 한인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2세 교육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들의 상당수는 본토의 유명 대학에 입학했으며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들 2세들은 하와이를 떠나 본토에서 살았으며 당연히 그들의 후손인 3세 4세는 하와이에 있지 않습니다. 또 하와이 교회에는 남아있는 3, 4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최근에 이민으로 간 사람들과 언어와 문화적으로 통하지 않아 함께 어울리지 않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런 사실을 박목사는 간과한 것입니다.

박형은 목사의 또 다른 문제는 소위 2세전문 목회자라면서 2세들이 “교회를 떠났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또는 다른 교회로 옮겼느냐?”는 것을 구분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난 2세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떠난 것이 아니라 뉴욕이나 워싱턴 DC 또는 시카고와 텍사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아고 등지로 직업을 따라 옮겼습니다.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채홍인 등 4명의 시무장로들의 자녀들 대부분도 직장과 학교를 따라 다른 지역의 교회로 옮겼습니다. 우리의 2세들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잘 훈련된 그들은 새로운 곳으로 파송됐다고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특히 동양선교교회 출신의 2세들은 부모에게서 배운 신앙을 토대로 미국내 각 지역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지경을 넓여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세들을 1세들의 교회안에 묶어두는 것이 2세목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교회 2세들 모두가 교회를 떠나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짜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불안, 공포분위기를 만드는 이단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4년동안 지원한 단체 이단으로 판명 텍사스 교계, 박목사의 이단 지원에 의심

이단 문제가 나왔으므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박 목사가 시무했던 빛내리 교회는 지난 수년 동안 선교단체인 “인터콥”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단체가 이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난 1월에 미주 한인 이단 대책위원회가 이단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했고 이 단체를 지원했던 서울의 수많은 대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 단체의 이단성이 밝혀지면서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빛내리 교회는 지난 4월 17일에 뒤늦게 지원 중단을 결정 했습니다 (아래 빛내리교회 후보 참조).

- 6교구(23-27구역) 교구예배: 4/24(주일 오후 3시, 교회 체육관)
- 선교골프대회를 연기합니다. 새로운 스케줄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성금요일 특별예배(칸타타)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빛내리 교회는 선교단체 인터콥과 연관된 모든 선교나 행사에 참여, 또는 후원하지 않기로 당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파송된 선교사에 대한 후원은 선교기간이 마칠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방침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친독

- 최(강)인선집사(629번째) 임영운집사(630번째) 방정웅장로(631번째)

그런데 빛내리 교회에는 “인터콥”의 핵심 인물인 장로와 안수집사가 아직도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박목사가 결코 이단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4년 동안**

이단집단을 어떻게 것처럼 꾸준히 지원해왔으며 핵심 인물을 그대로 놔둔 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느냐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이단의 침투입니
다. 그런데 박목사는 지난 4년 동안 그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그대로 방치한 채
뒤 늦게 “나와는 관련이 없다”며 사태를 수습하지 않은 채 빛내리 교회를 빠져 나왔습니다. 빛내
리 교회가 있는 텍사스 교회는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수 년동안 담임했던
목회자로서의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부임, 수 년동안 담임하면서 그 사이에 이단이 침투, 우리 교회가 초토화 됐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교인 여러분 모두가 심각하게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
문입니다. 과거에 이단의 침투 경험이 있는 우리는 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박형은 목사의 우리교회 담임목사 청빙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미국내 대부분의 대형교회

2세목회 필요하면 전문 부목사임명으로 해결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2세 목회는 전문적인 훌륭한 부목사님을 모셔오면 됩니다. 담임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담임목사는 1세와 2세 더 나아가 3, 4세까지 아우르는
큰일을 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영락교회를 비롯한 미주 내 대형교회 모두가 지금 그런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참다운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운영에 담임목사 필요

장로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젊은 목회자 선택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채흥인 등 4명의 시무 장로들은 그럼 왜 이처럼 청빙하려는 목사에 관
해 주의 깊게 알아보지도 않고 오직 청빙에만 매달리는가?

재정부를 맡고 있는 이영송 장로는 지난 달 제직회때 “은행에서 담임목사가 없어 용자를 해주
지 않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담임목사를 청빙해야 한다고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참다운 목
회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데 담임목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 이들
젊은 2세 목회자들이야 말로 장로들 마음대로 “취락 퍼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먼저 교회내의 분란을 양보와 사랑으로 해결하고 서로 하나가 된 뒤에 담임목
사를 찾아 청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은 우리(당회원들)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부정, 불법 선거를 하려하고 있는 것입
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 당회는 세상 어느 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방법인 공동총회를 1, 2, 3, 4, 5부
로 나누어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투표할 수 있
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사람들의 투표율은 때로는 10% 안팎의 정말 낮은 수준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투표율을 높이자고 5일 동안 투표하자고 주장한 일이 있습니까?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으며 앞으

로도 없을 것입니다.

**공동총회 5회로 나누어 감시기능 약화시키려는 의도
투표, 개표 마음대로 조작,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계획**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채홍인 등 4명의 시무 장로들은 5차례로 나누어 투표를 함으로서 감시 기능을 없애고 한꺼번에 모아 둔 뒤 숫자를 세지도 않고 미리 준비한 그들이 원하는 안대로 “통과됐습니다”고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박목사 청빙 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입니다.

홍민기 목사 청빙 때와 피택장로 선출 때 우리교회 당회는 서슴없이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부정투표를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일어서라”고 한 뒤 3분의 2정도가 일어났는데도 세지도 않고 86명 반대에 392명 찬성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상천외한 발표를 했습니다.(당시의 상황은 DVD와 사진으로 보관 돼있습니다) 피택장로의 경우, 사찰집사들이 보는 앞에서 표를 조작, 득표수도 밝히지 않은 채 통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엄창웅, 최형수, 이승래, 이호성집사의 장로피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정이었습니니다. 우리는 감히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같은 불법과 부정으로 장로를 피택한 뒤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투표와 개표요구에 마이동풍
부정선거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보여**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공동총회에서는 정통회에서 투표와 개표를 감독하는 요원으로 한두 명이라도 참가토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찬, 반 발언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많고 타락한 어느 지역의 한인회 선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총회를 할 때 공정하게 하자고 제안했는데 왜 대답조차 없는 것입니까? 교인 여러분! 이영송, 최수남, 이영세, 채홍인 등 4명의 시무장로들은 공정한 투표와 개표를 할 경우 박형은 목사의 담임목사 청빙 안은 당연히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우리는 빛내리 교회에 2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박목사를 직접 만나 우리 교회의 현재의 교회 사정을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대로 알아 볼만한 것들을 모두 알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단은 공동총회에서 치러질 선거가 불법, 부정으로 치닫는 경우 동양선 교교회 교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박 목사도 이 부분에 찬성, 이영송 장로에게 직접 전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박목사가 전화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전화를 받고 장로들이 목살을 한 것인지 그것은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불법, 부정선거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그들의 의지(?)입니다.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당회는 재정 서류와 교인 주소 등 교인들에게 공개하라 LA 지방법원 지난 14일 김해룡, 김효신 집사에 승소판결

지난 6월 14일에 LA 지방법원에서는 우리교회 김해룡집사와 김효신집사가 당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집사의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8일자로 내려진 이 임시 판결문은 그동안 당회가 교인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결하고 교인들이 원하는 교인 주소와 당회록 그리고 재정 서류 등을 법에 따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 당회는 이들 두 집사가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이들을 제명시킨 뒤 “당신들은 교인이 아니므로 보여 줄 수 없다”는 등 상식에도 어긋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두 집사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서면으로 요청하면 필요한 서류를 직접볼 수 있으며 복사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양선교교회 회복 대책위원회



동양선교교회 교인들을 위한 웹사이트가 마련돼 있습니다.

www.klifeusa.com 에 가시면 동양선교교회란이 있고 그곳을 클릭하면 이 글을 포함해서 동양선교교회의 최근 소식 등 많은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직접 글을 쓰실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방법도 그 안에 기록돼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또 한인 사회의 뉴스와 문학인들을 위한 “문예 마당” 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나 수필, 단편 등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www.klifeusa.com 입니다.